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개소

도내 중기·벤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디지털화 촉진  
지난해 11월 선정 이후 시설·장비 모두 갖추고 운영 돌입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

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선정의 쾌거를 이뤄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고,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장 먼저 구축되며 선도모델이 됐다. 향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마케팅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데 뒷받침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전북도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내 3층으로 구축돼 1층에는 개별 온라인 상담을 위한 상담부스 10개와 방음실, 촬영장비 등이 구축된 개인방송실이 설치됐으며, 2층에는 IR·IPO·창업경진대회 평가·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방송실, 무대 등을 설치해 다목적실을 구축하고, 3층에는 국제회의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의 테이블과 대형 모니터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고, 해외 출장도 제한되는 등 마케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들과 화상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에 호남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장형 회의실이 구축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앞당기는데 뒷받침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전북 확장형 화상회의실 개소식이 1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가운데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수능 6월 모의평가 내일 실시

도내 고3 재학생·졸업생 1만8145명 응시

3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공통과목+선택과목'이라는 새로운 체제에서 실시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해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국어·수학·작업 탐구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가 도입된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도 원칙적으로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EBS 교재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영어 등에서 직접 연계방식이 사라진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만8,145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1만7,938명이고 졸업생은 207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모의평가 시행

으로 수험생들이 수능 문항유형과 난이도를 직접 접할 수 있어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및 EBS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성적처리하는 평가원에서 본 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며, 개인별 성적표지표 및 성적일람표 등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표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따라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입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응시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6월 모의평가는 본인의 수능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남은 시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일(고2) 1만6,228명, 3일(고1) 105개교 1만4,915명이 각각 응시한다. /장은성 기자

## 초고령 사회 안전지킴이... '119 실버체조' 개발

도 소방본부, 노인회 전북연합·전주대 등과 협약 체결  
트로트 활용한 체조 통해 기초소방상식 익힐 수 있어

치료 연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정적 인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도는 초대 단장으로 현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인 이상열 교수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심리지원단 단원은 이상열 단장을 포함해 12명으로 학계 7명, 민간전문가 2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됐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기관 간 중복상담을 방지 및 재난심리 총괄조정과 구호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해 재난을 겪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른 시간 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소방본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및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인은 신체적 기능 저하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 시 안전에 취약하고, 코로나19로 노인 안전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많은 사람이 위험성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미미한 상태다. 이런 초고령 사회에 국가와 사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노인계층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대한노인회, 전주대와 협업해 생

활 속에서 안전 의식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소방 안전 119 실버 체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119 소방 실버 체조는 소방 트로트를 활용해 기초소방상식을 체조를 통해서 쉽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다. 또 실버 세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인 대상에 맞는 즐거움과 기억소환 밸런스를 적용해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도 소방본부에서는 도내 어르신 주요 시설과 13개 소방서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실효성 있는 재난현장 심리구호 활동 전개

도,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도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전북도가 소규모 재난발생 현장에서 이재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리구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이하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도는 1일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해 기존의 각 기관과 부서에 산재해 있는 심리회복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심리지원단은 지난해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도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마련됐다.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을 위한 도차원의 총괄 지원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심리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 관내 물류창고 화재 당시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협회 등이 현장에 모여 중복상담 등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심리지원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상담 인력·치료 방법 등 공유로 협력체계를 만들고 총괄 조정하여 여러 기관의 상담 중복을 사전 방지한다.

특히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단순 상담이 아닌 세부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

**유과·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남원시 | 남원에촌 |**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